논어 7편 술이 13장 · 쓰기 연습

子在齊聞韶，三月不知肉味，曰：「不圖爲樂之至於斯也！」

이 장의 글자를 문장 순서대로 따라 쓴 뒤, 바로 아래 빈칸에 써 보세요.

子 在 齊 聞 韶 三 月 不 知 肉 味 曰

不 圖 爲 樂 之 至 於 斯 也

저본: 위키문헌 論語 · 편별 고정 판본과 전체 교정 기록은 출처 페이지를 참고하세요.